

논산그린투어 전통숙박시설 활용방안

Application methods of traditional house in Nonsan Green Tourism

전명숙
건양대학교

Chun myung-sook
Konyang Univ.

요약

논산그린투어는 논산지역의 특산물인 딸기를 중심으로 농산물재배, 채취를 주제로 하여 농촌의 일상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린투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방문자에게는 최근농촌생활의 체험 및 농작물의 채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도농교류를 통한 관광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촉진을 도모하여 농 특산물의 홍보효과와 더불어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이미지의 고취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단, 현재 논산그린투어의 관광자행동 특성 중 하나인 경유형 당일체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논산지역의 한국전통가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농촌관광지로 변화시킬 숙박시설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써 논산지역의 전통가옥과 그린투어의 접목 방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Abstract

Nonsan green tourism is an agricultural tourism. Visitors can participate and experience the agricultural product harvests or particular farmer's work activities. For visitors it provide natural environment and to take freshen air with new rural activities. To the residents it creates extra benefits out of the visitors green tourism. But, for the time being, the characteristic point of the tourists behavior of this tour is 'stop and pass' style in a single day. To create various contents of this tour needs develop visitors to 'stay over night' program and examine the practical methods of traditional houses as its accommodation facilities.

I. 서론

논산의 그린투어는 도시와 농촌간의 단절되어가는 관계를 이어주는 소통의 역할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논산시가 주축이 되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논산지역의 농산물 생산 농민의 농장개방과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프로그램, 농촌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논산 그린투어는 논산지역 특산물 수확체험과 생태환경체험, 전통식품체험, 전통문화체험, 지역축제 참여, 문화유산 답사 등의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자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방문자에게는 도시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와 자녀들의 생태환경에 관한 자연 학습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린투어 참여 농가에게는 관광농업 실현과 친환경농법의 활용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증대, 농산물 직거래, 지역 이미지 상승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논산그린투어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치한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은 2003년 13,000명, 2억1천만원, 2004년 15,500명, 2억 4천7백만원, 2005년 10월 기준 20,700명, 3억 2천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였다[1].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진행중인 논산 그린투어와 같은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특성중 하나는 관광객 유형중 대부분 '경

유형'으로써 주로 자녀와 함께 1일 농촌체험에 참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보다 더 충실한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진정한 농촌생활체험 관광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들을 논산지역에 하루이상 체류할 수 있는 숙박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인 논산의 그린투어가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숙박공간의 활용에 대하여 연구하고자하며 그중에서도 논산지역에 존재하는 한국전통가옥을 관광자원화하여 논산의 그린투어와 접목시키는 방안이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그린투어의 개념

그린투어(green tour)란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의 green(녹색)+tourism(관광)이 합쳐진 관광용어로서 그린(green)이란 녹색과 관련된 자원, 즉, 농촌과 관련된 자원을 의미하며 농촌관련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을 의미한다[2]. 그린투어는 농촌관련 체험 위주의 관광이라는 점에서 '농장관광

‘이나’ 농업관광’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그린관광은 산업 혁명이후 과학의 발달과 여가인구의 급증에 의한 대중관광의 범람에서 비롯된 정형화된 관광형태로부터 자연친화와 웰빙을 중요시하는 최근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농촌생활 체험을 주제로 하는 관광을 의미하며 이는 관광에서도 자연으로 회귀하고자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린투어(green tour)는 ‘녹색관광’이라고도 불리며 자연생태계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환경에 관한 관심을 일깨워주는 관광이라는 의미에서 대안관광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 명칭에 대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구분을 내리지 못하고 농촌관련관광이라는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논산의 그린관광은 농촌관광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데 농촌관광이란 농촌지역 주민이 관광상품의 공급자인 반면 관광의 수요자는 도시거주민에게 한정된 것이 아닌 농촌을 방문하는 참여자가 수요자가 되며 공급자인 농촌지역 주민이 농촌지역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관광매력물로 개발하여 수요자인 관광객에게 농촌관련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관광상품을 기획, 판매하여 관광행동을 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3]

2. 전통가옥 관광숙박시설 종류

2.1 게스트 하우스

전통가옥을 관광객 또는 여행자를 위한 숙박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속하며 우리집 게스트하우스, 락고재 등이 있다.

2.2 전통생활문화 체험관

전통가옥의 형체를 보존하거나 신축하여 한옥생활문화체험 공간이나 전통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에 해당하며 그 예로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양사재, 동락원, 수애당, 지례예술촌, 삼청간 등이 있다.

2.3 한옥관광호텔

일본의 전통 숙박시설 ‘료칸’에서 컨셉을 참고하여 전통건물에서 전통방식으로 숙박하면서 전통을 맛볼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서 현대적 한옥건축물로 지어진 호텔이며 각 객실이 방 2-3개와 마루가 있는 한옥집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경주의 ‘라궁’이 그 예이다.

2.4 민박

전통가옥을 관광객을 위한 일시적 임대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며 관광객은 서민적 생활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1] 전통숙박시설 운영현황[4]

명칭	지역	가격(만원)	비고
삼청각	서울 성북동	23-60	전통음악, 교육, 다례, 도자기, 지수 체험장, 공연장
락고재	서울 북촌 한옥마을		전통음식제공, 다례, 선비 체험, 국악연주
세화관	전북 전주	6-30	국악강습, 전통악기연주, 한복입기, 민속놀이
양사재	전북 전주	5	
수애당	경북 안동	3-8	한지공예접시만들기
지례 예술촌	경북 안동	2.5-5	식사
송소 고택	경북 청송	4-18	

3. 전통숙박시설 활용가능 공간

3.1 전통가옥

한국의 전통건축법을 지켜 축조된 건축물로서 집 주인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가옥이다. 전통고택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기념성이 높은 문화재이며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전통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한 가문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종가집도 전통가옥의 범주에 포함된다.

3.2 향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부터 존재해온 지방 교육기관으로서 제사공간인 문묘와 학습공간인 강학공간으로 나누어진다. 고려시대에는 공자를 제사지내는 문선왕묘를 중심으로 명륜당이라는 강당을 설치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각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부, 목, 군, 현 에 1교씩을 설치해왔으나 고종 31년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향교의 강학기능이 사라졌지만 현재 각 지방에 향교의 건축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다. 향교와 같은 전통교육기관을 문화재로써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세대에게 조상들의 교육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특이한 기회를 창출하여 향교를 부활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고해볼 수 있다.

3.3 서원

조선 중기부터 민간에 보급된 사학교육기관으로서 선현에 대한 제사공간과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강학공간을 갖추었다. 조선의 건국 초 내세운 승유배불정책으로 인하여 고려의 불교 사원에 대신하여 서원의 설치가 장려됨에 따라 각 지방에 건립되어 학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그 건축물이 각 지방에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향교와 마찬가지로 한국 전통의 사적 교육기관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신세대에게 전통적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3.3 전통사찰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 축조된 건축물로서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5].

고구려 소수림왕(372년)에 전래된 불교는 삼국에 전파되어 그 세력을 확장하여 왔으며 고려시대에는 국교로 인정되어 불교의 생활화가 일반화 되었다.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으로 세력이 약해지는 하였으나 그 명맥이 유지되어 전국 각 지역에 불교사찰이 보존되어오고있다.

III. 논산지역 전통건축물 현황

1. 전통가옥

1.1 윤증고택

조선후기(1709)에 목조로 건축된 단층민가가옥이며 성리학자인 윤증선생의 고택으로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위치하고 있다. 윤증선생의 호에서 따온 명재고택으로도 불리는 이 건물은 풍수지리설에 따른 건물배치와 지형의 높낮이를 그대로 살린 자연과의 조화, 합리적인 동선구획 등 실학정신을 그대로 가옥에 투영한 윤증선생의 안목을 느낄 수 있으며 대문, 사랑채, 안채의 배치가 한옥구조의 특징인 외적공간, 내적공간, 완충공간, 수납공간, 공적공간으로 나뉘어진 독창적인 구조를 보인다.

1.2 윤황선생고택

1772년 선조 5년에 장원급제한 윤황선생의 가옥으로 1730년대 이축한 건물로서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ㄷ자 형태의 건물배치를 하고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으로 지붕을 마무리하였으며 안채, 사랑채, 아랫채,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와 목재를 혼합하여 건축을 완성한 기능성과 다양성을 갖춘 건물이다.

1.3 이삼장군고택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삼장군 고택은 석재와 목재를 주로 사용한 조선시대 양반가옥형태로 지어졌다. 솟을대문 문간채, 안채와 사랑채, 사당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조선 영조때의 이삼장군의 가옥이다.

2. 향교

2.1 노성향교 대성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에 건축하였으나 1700년경 교촌리로 이전하였다. 석재와 목재를 사용한 전통건축물이며 대성전에 공자를 중심으로 한 제자와 조선시대의 선현들을 모신 공간이다.

2.2 연산향교 대성전

조선태조 7년(1398)건립하여 수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공자와 그의 제자를 위한 제사를 목적으로 한 공간이다. 강학의 유생들이 거처하던 장소인 명륜당이 있다.

2.3 은진향교 대성전

조선 태조 7년에 건립되어 인조 20년(1642) 현재의 위치인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로 옮겨졌다. 석재와 목재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제사공간인 대성전이 남아있다. 9인의 중국선현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3. 서원

3.1 노강서원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에 위치한 노강서원은 조선 현종13년(1672)에 건립되고 숙종 8년에 사액된 서원으로 윤희, 윤페, 윤선거, 윤종 4인을 배향하는 서원이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보존된 전국 47개의 서원중 하나이다. 석재와 목재로 건립된 강당과 사당이 있다.

3.2 죽림서원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위치한 죽림서원은 인조 4년(1626)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모신 후 황산서원이라 하였으나 그 후 사계 김장생을 추배하고 현종 6년(1665)죽림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은 후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 우암 송시열의 위패를 추배하였다.

3.3 돈암서원

논산시 연산면 암리에 위치한 돈암서원은 조선 인조 12년(1634)건립되었으나 현종원년(1660)에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고종 3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서원철폐령에도 제외되었다. 소슬3문과 응도당, 양성당, 장판각, 정회당, 산양루가 있으며 조선후기 건축물로 국가지정 사적지로 등록되어 있다.

4. 전통사찰

논산시 인근지역에는 전통적인 불교사찰이 건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불교를 전파하고 사찰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몇몇 불교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라는 불교

사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교사찰의 대부분이 전통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사찰숙박 자체가 한국의 전통생활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관광과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며 현재 숙박 가능한 전통사찰과 그 내용을 표 2 와 같다.

[표 2] 논산인근지역 전통사찰 숙박 공간

전통사찰	소재지	수용 인원(명)	내용
마곡사	공주시 사곡면	70	명상, 삼림욕, 문화재 방문, 산행,
갑사	공주시 계룡면	50	불교무술체험, 탁본, 암자순례, 신형체험
영평사	공주시 장기면	50	예불, 108참회화명상, 욕망 명상
부석사	서산시 부석면	50	예불, 참선, 산사체험
수덕사	예산군 덕사	30	참선, 선체조, 예불, 덕숭산 산행

2. 국외 전통건축물 관광자원화 사례

논산그린투어 전통숙박시설 활용방안을 참조하기 위하여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식 건축물을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표 3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주로 오래된 각국의 건축물을 전통여관, 호텔, 게스트하우스, 휴양호텔, 전시관등으로 개조하여 관광숙박시설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국외사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국의 사례는 표 3과 같다.

[표 3] 국외 전통가옥 관광자원화 사례

명칭	소재지	시설구분	특징
시리카와코우	일본 기후현	민박식 전통여관	전통가옥촌, 민박
즈로토미야사키	일본 미야자키현	전통여관	300년 중요문화재, 여관
시케토미소	일본 가고시마현	전통여관	전통정원가옥여관
카메노이벳소	일본 오이타현	전통여관	70년별장 전통여관
애쉬밀 팜	미국 펜실베이니아	전원호텔	18세기대저택 전원식 호텔
캐슬호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성양식 호텔	옛성활용호텔
1790 하우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관	200년 서부식 여관, 호텔사용
블랜하임 펠리스	영국 옥스퍼드	전통성곽	위스턴처칠경 생가 관광지화
그린팜	이태리 피사	전원호텔	전통건물 전원풍 호텔
르 자르맹 드 누엘리	프랑스 파리	호텔	루이16세 응접실 있는 호텔

디 올드 레일웨이스테이션	영국 웨스트서섹스	게스트 하우스	1894년역사, 숙박시설
다버 캐슬	아일랜드	휴양호텔	500년 성곽, 호텔
밀하우스 온더브리지	호주 테스마나	휴양호텔	1850년 방앗간, 게스트 룸
카사로마	캐나다 토론토	전시관	네오고딕저택 전시관

IV. 연구 요약 및 결론

1. 법, 제도적 전통건축물 활용 기준 정립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산지역의 전통건축물을 전통가옥과 향교, 서원, 전통사찰과 나누어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전통건축물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과 관리에 관한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문화재를 보존할 공간과 활용 가능한 공간을 구분하여 활용 가능한 공간을 교육 공간 또는 그린투어 관련 숙박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마련하여 문화재가 단지 보존대상이 아닌 활용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전통건축물 그린투어 연계 숙박시설활용 프로그램 개발

논산그린투어상품의 품질향상과 고객의 만족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참여농가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인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농촌관광과 전통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한 숙박공간이 아닌 주간의 농촌체험과 야간의 건축물의 특성과 사용용도에 따른 특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연계시키면 논산 그린투어상품의 질이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전통건축 공간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방문하는 신세대 또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교육, 예절, 생활상, 종교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전통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3.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

전통건축물을 그린투어의 숙박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부분, 개인소유 또는 한 가문의 소유, 사찰 소유로 등록된 전통건축물을 문화재청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숙박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 보수, 공간정비와 같은 과정과 관련 경비를 관련 지자체에서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2005, 논산시청 내부자료
- [2] 전명숙, 정민의, “논산 그린투어 활성화 방안”, 관광연구저널, 제 19권 제3호, pp.486, 2005.
- [3] 전명숙, “농촌관광과 전통한옥 숙박공간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4 No.1, pp377, 2006.
- [4] 허갑중, “전통숙박시설 육성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13, 재인용, 2005.
- [5] 허갑중, “전통숙박시설 육성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1, 2005. www.nonsan.go.kr